

오피니언

냉소가 판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그 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만도 부정부패로 잡혀들어간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렇다고 사회가 정말 깨끗해졌다고 믿는 사람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아무리 단호한 개혁과 사정의 방침이 발표되어도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떠한 사회이기에 이러한 '냉소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천민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돈을 가진 집단, 즉 자본가 계급은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권력과 유착하여 손쉽게 돈을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의 확보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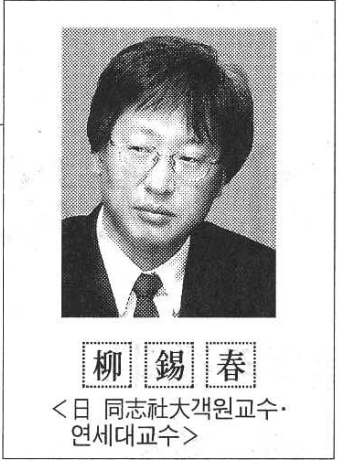
일제시대에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쌀값이 비싼 일본으로 쌀을 수출할 수 있었던 지주와 상인들이었다. 해방직후에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을 불하받을 수 있었거나, 아니면 소위 정크

무역이라는 밀무역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미국의 원조물자를 손쉽게 배분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모두 권력과의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는 1960년대 이후는 어떠한가. '수출주도산업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편승하지 못하면 한국에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었다. 정부가 마련한 온갖 특혜는 모두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경우에만 제공되는 돈벌이의 기회였다.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물론이고 대일 청구자금과 같은 외자의 분배를 통한 특혜금융, 그리고 월남 및 중동의 특수는 모두 정부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었던 기업에만 제공되는 자본의 축적 기회였다. 그러나 권력과의 유착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변함없는 자본-권력의 유착

이러한 유착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유착은 자본가집단으로 하여금 돈벌이를 위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권력과의 특수한 관계 유지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착에서 배제



柳錫春
<日 同志社大客員 교수·연세대학교수>

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아진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유착으로 발전한 한국의 자본주의는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었는가. 그들은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받았을 뿐이다. 회사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우니 노동자나 농민과 같은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호소를 언제나 들어야 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자본가 집단은 한번이라도 먼저 스스로 나서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가장 비근한 예가 80년대의 민주화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의 역할이다. 민주화라는 시대의 요구에 가장 늦게, 그것도 마지못해 동참한 집단이 바로 한국의 자본가 집단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보수성은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위기를 틈타 기업은 약한 사람을 잘라내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

권력과의 유착에 의한 돈벌이 과정을 뻔히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기업이 갑자기 시장논리를 내세우며 사람을 자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권은 앞 정권의 비리를 폭로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권력과 기업이 어떻게 유착하고 있는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정권이 바뀌는 게 두려울 지경이다.

'야당성 정부' 기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정부의 야당성을 근거로 이번 정권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그러한 기대가 매우 순진한 바람이었을 뿐임을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다. '노조와해공작' 발언에서부터 '옷 로비' 파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자본주의의 추악한 천민성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할 까닭이 없다. '모두가 도둑놈'이라는 빈정거림 이외에는 달리 할말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왜 한국의 자본주의가 빨리 망하지 않는가가 궁금할 따름이다. <교토에서>